

<목회실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한성 목사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 이 중에 하나만 취사선택 한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반쪽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속의 사랑이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일상에 치여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창조적 여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는 '땅 너머의 삶'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면, 권사님들이 삼삼오오 둘러 앉아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Solid Rock' 이라는 원제가 붙은 이 찬송가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영감을 받아 작사 했습니다. 런던 거리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주님이 반석이 되신다'(고전 10:4)는 말씀을 근거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뿐이지요. 주 예수 밖에 없지요. '주님만이 나의 단단한 반석이 되시니,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입술로는,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고백 하면서, 다른 반석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에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이 찾아와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을 때"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로 작정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중한 소망을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되묻고, 다시 새겨야 될 현재 진행형의 물음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뿐일세.